

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상향' 재표결 촉각

오늘 무기명투표…결과 예측불허

출석 의원 2/3 찬성 시 조례 확정
市 "심도 있는 토론 절차 거쳐야"

광주시의회가 임시회 폐회일인 30일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재표결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준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숙박 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표결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가 확정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의 안이 통과되면서 자체 없이 조례를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례가 이송된 후 5일 후에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반면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재의 조례안은 폐기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9일 재표결을 앞두고 시, 시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의원 내부 논의를 거쳤으나 찬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

가 읽힌다.

한 의원은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에는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도 있어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해당 조례안이 재의 요구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 측면에서 의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례안 재의의 과정이 간접 토론보다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는 재의안이 통과돼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위법 사항이 없는 만큼 대법원 제소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조례안이 별표상 주거비주거 용적률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조례안 반대 입장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할 것을 시의회에 제안했다"며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방면의 제안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 "광주시의회는 도시계획의 용도용적제 근본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큰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고 광주공동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재의 조례안은 폐기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9일 재표결을 앞두고 시, 시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의원 내부 논의를 거쳤으나 찬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8일 인천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인천호남향우회 제31대 오명석 회장 연임식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인천·충북향우회와 소통 행보…도정 공유

고향사랑 실천·서포터즈활동 유대 강화

금지사 "의대 등 핵심과제 실현" 강조

전남도는 전국 향우들과의 소통 행보를 강화하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 도정 핵심 현안 공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8일 인천 제일고등학교에서 열린 인천호남향우회 제60차 정기총회 및 제31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 향우들과 만났다. 인천호남향우회 행사에서는 100만 인천호남향우를 대표하는 오명석 회장이 제31대 회장으로 연임했다.

취임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박종명 서울호남향우회장,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향우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오명석 회장은 "100만 향우 회원과 함께 인천

호남향우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도 앞장서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오명석 회장의 연임을 축하한 뒤 "그동안 인천호남향우회가 고향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줘 전남의 외연을 넓히는데 큰 힘이 됐다"며 "향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고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 도정 핵심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이날 목포·신안을 방문한 충북호남향우회를 대상으로 '고향 방문 및 도정 설명회'를 개최해 고향사랑 실천과 유대 강화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는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한액 증서 전달식,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을 통한 고향사랑 응원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충북호남향우회에선 박종겸 회장 300만원, 최신균 부회장 300만원, 이계록 사무총장 370만원, 회원 30명 300만원 등 총 1천27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남도에 기탁해 '전남 고향사랑 기부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종겸 회장은 "고향의 달라진 모습에 감회가 새롭고 자부심이 커졌다"며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 고향의 중요한 현안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출향 향우들과의 교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道, 행복드림 여성친화 특화사업 본격화

7개 시·군 안심장비 등 인프라 확충

전남도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여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전남 행복드림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행복드림 여성친화 특화사업은 '전남형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

이다.

여성·안전·돌봄 분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고 싶은 전남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과 연계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9천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여성·1인가구 안심장비(나주) ▲여성안심 마을지도·버스 승강장(장흥) ▲안심밸·CCTV 등 생활안전시설(강진) ▲안심귀갓길·안전마을(해남·완도) ▲안심공중화장실(장성·진도) 등이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친화 특화사업은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안전과 돌봄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정책"이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창립 20년'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의료격차 해소 앞장

6만2천여명 진료·투약서비스



광주시는 29일 "최근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2005년 설립된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이주사각지대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건강상담을 제공한 비영리 의료봉사단체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는 이주민, 자원봉사자, 의료진, 후원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건강권 세미나, 유공자 시상식, 비전 선포식, 사랑나눔콘서트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이주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한 의료인 4명(김일환·유경태·최희석·한현정)에게 광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역사회 내 이주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이날 '차별 없는 건강권, 포용적 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20년 간 총 1천15회 진료소를 운영해 70여개 국가 출신 6만2천여명의 이주민에게 9만8천여건의 진료·투약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광주시 신규 사업인 '의료 통·번역 활동'이 양성 및 과천 지원 사업을 통해 12개 언어권의 전문 의료통역사 29명을 양성, 총 124건의 의료통역을 지원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제고에 힘썼다. 〈변은진 기자〉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생명보험협회
Korea Association of Life Insurers



손해보험협회
Korea Association of Non-life Insurers



IGRA 보험GA협회
Korea Association of General Agents